

함안 성산산성 출토 문서목간과 力役 동원의 문서 행정

Wooden Documents Excavated from the Seongsansanseong Fortress in Haman and Documental Administration for National Services of Silla Dynasty

저자 (Authors)	이재환 Lee, Jae-hwan
출처 (Source)	목간과문자 22 , 2019.6, 35-56 (22 pages) Wooden Documents and Inscriptions Studies 22 , 2019.6, 35-56 (22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목간학회 The Korea Society for The Study of Wooden Document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749614
APA Style	이재환 (2019). 함안 성산산성 출토 문서목간과 力役 동원의 문서 행정. 목간과문자, 22, 35-56.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25 10:23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함안 성산산성 출토 문서목간과 力役 동원의 문서 행정

이재환*

- I. 머리말
- II. 가야2645와 村主의 入役者 관리
- III. 가야5598과 役夫의 식량 조달
- IV. 가야1602와 다면목간의 줄맞춤
- V.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함안 성산산성에서 출토된 세 점의 문서목간, 가야2645와 가야5598, 가야1602에 대한 나름의 판독과 해석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몇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거리들을 제시해 본 것이다. 가야2645는 원래 정해진 복역 기간 60일 동안 작업을 다 마치고 □□走石이 인솔하는 새로운 역역 동원자들과 교대해야 했을 □□智 一伐 휘하의 力役 동원자들을 烏馮城에서 보내주지 않자, 그들의 소속지인 □馮城 □看村主가 이러한 정황을 상위 행정단위에 보고하여 이들의 귀환을 요청한 문서로 파악하였다. 역역 동원에 있어서 村主와 그를 대신해 파견된 현장 담당자의 역할이 중요했음은 가야5598에서도 확인된다. 가야5598은 현장 담당자인 伊毛羅 及伐尺이 현장 및 인원 현황을 검토한 결과 이전에 결정되었던 교대 기간 60일을 30일로 줄일 수 있음을 고하자, 眞乃滅村主가 30일분의 식량만을 준비하면 된다고 □城의 弥即尔智 大舍와 下智에게 보고한 문서로 보인다. 역역에 종사하는 인원들이 현장에서 村別로 관리되는 정황은 가야1602에도 나타나고 있다. 이 목간은 村 단위로 丁의 현황과 증감을 기록한 장부의 일부로 판단된다. 나아가 가야1602는 다른 무언가를 의식하여 위쪽을 비워두고 아래쪽부터 서사하였다는 점에서, 다면목간도 단독으로서 완결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함께 묶여서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단독간에 기반하였다고 간주되어 왔던 한반도 목간 문화의 새로운 면모를 엿볼 수

* 홍익대학교 교양과

있다.

▶ 핵심어: 咸安 城山山城, 文書木簡, 가야2645, 가야5598, 가야1602, 力役, 多面木簡

I. 머리말

본고는 함안 성산산성에서 출토된 문서목간에 대한 해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문서목간은 용도에 따른 목간의 분류 범주 가운데 하나이다. 일본의 경우 목간을 文書(A), 付札(B), 기타(C)의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그중 문서는 諸官司에서 작성된 다양한 문서·기록·官人の 편지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다시 그 서식에 따라 협의의 문서(a)와 기록(b)으로 나뉜다. 협의의 문서(a)란 어떠한 형태로든 授受關係가 분명한 것을 가리키며, 수수관계가 명기되지 않은 기록(b)은 다시 傳票와 帳簿로 분류된다고 한다.¹⁾

한국 고대 목간에 대해서도 이러한 분류를 받아들여 문서목간을 꼬리표목간, 기타 목간과 함께 세 개의 큰 분류 범주 중 하나로 두고, 그 하위 항목으로 官司나 官人 사이에서 명령의 전달 혹은 행정 처리의 보고·업무 연락을 위해 사용한 (협의의) 문서목간과 문서행정의 과정에서 근거를 남기기 위해 제작한 기록목간(帳簿, 集計, 傳票, 기타)을 설정한 견해가 있다.²⁾ 이와는 조금 다르게 한국의 고대 목간을 용도에 따라 다섯 가지로 구분하면서 그중 하나로 문서목간을 설정하고, 이를 다시 문서수발자가 명확한 '수발목간'과 '장부목간', 전표나 각종 행정처리를 위한 메모·발취용으로 사용된 '기록간' 등 세 가지로 나누기도 한다.³⁾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 가운데 문서목간으로 분류할 수 있을 만한 것은 많지 않다. 대부분은 荷物에 붙어있던 꼬리표로 간주되고 있다. 다양한 지역으로부터 온 것으로서, 서식도 지역 별로 약간의 차이점이 확인되지만, 적혀 있는 내용 요소들은 대체로 비슷하여 지역명과 人名, 物품명, 수량 정도이다. 이들과 형식이나 성격을 달리하는 목간의 존재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이루어진 제11차~제14차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된 목간들이 공개되면서 비로소 인식되기 시작하였다.⁴⁾

새롭게 보고된 목간들 가운데 가야1609(한국 목간사전 [城]107, 12차 현장설명회 2006-w19, 발굴보고

1) 寺崎保廣, 2004, 「帳簿」, 『文字と古代日本 1 支配と文字』, 吉川弘文館; 이성시, 2011, 「한국목간연구의 현재」, 『죽간·목간에 담긴 고대 동아시아』,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p.48.

2) 이경섭, 2013a, 「新羅木簡의 출토현황과 분류체계 확립을 위한 試論」, 『신라문화』 42,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pp.103-104.

3) 윤선태, 2007, 「한국고대목간의 형태와 종류」, 『역사와 현실』 65, pp.177-180.

4)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07, 『함안 성산산성 12차 발굴조사 현장설명회자료』.

손환일 편저, 2011, 『韓國 木簡字典』, 國立加耶文化財研究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1, 『함안 성산산성 발굴조사 보고서 IV』.

서 사진107-486, 한국의 고대목간 II 연번 078)와 가야1602(한국 목간자전 [城]127, 12차 현장설명회 2006-w40, 발굴보고서 사진118-507, 한국의 고대목간 II 연번 075), 가야2629(한국 목간자전 [城]210, 발굴보고서 사진159-589, 한국의 고대목간 II 연번 175), 가야2645(한국 목간자전 [城]221, 발굴보고서 사진165-600, 한국의 고대목간 II 연번 186), 가야2956(한국 목간자전 [城]223, 발굴보고서 사진167-603, 한국의 고대목간 II 연번 188) 등이 문서목간으로 지목되었다.⁵⁾ 이에 더하여 가야2639(한국 목간자전 [城]218, 발굴보고서 사진163-597, 한국의 고대목간 II 연번 183)와 가야2640(한국 목간자전 [城]219, 발굴보고서 사진164-598, 한국의 고대목간 II 연번 184), 가야2954(한국 목간자전 [城]222, 발굴보고서 사진166-601, 한국의 고대목간 II 연번 187) 또한 문서목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견해도 나왔다.⁶⁾ 이후 2014년에서 2016년에 걸쳐 진행된 제17차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가야5598(목간 공개 1호, 출토번호 w150, 한국의 고대목간 II 연번 218)이 문서목간으로 공개되어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⁷⁾

그런데 가야2629와 가야2954는 목흔이 있으나 판독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가야1609의 경우, 다면목간으로서 내용상으로도 문서목간이라고 보거나,⁸⁾ “(之)形白(汝) / △月(音)”으로 판독하고 문서 혹은 詩文을 적은 것으로 본 견해가 나와 있다.⁹⁾ 너비 1.3cm에 두께 2.0cm로 다소 두꺼워서 다면목간일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는 앞·뒷면의 목서만 확인 가능한 상태며, 판독 가능한 글자들도 人名이나 村名의 일부인지, 詩文이나 행정문서의 문장 중 일부인지 판단내리기 어렵다.

가야2639는 比思伐과 夷喙 출신 외위 소지자 두 명의 인명이 함께 등장하는 흥미로운 목간으로서, 다른 荷札들과는 서식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거나, 瓮에 달아둔 付札로 여겨지므로 문서목간의 분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가야2640 역시 刀寧의 負에 盜人이 있었음을 전하는 독특한 내용이 눈길을 끌지만, ‘此負’라 하여 짐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고 형태적으로도 전형적인 荷札의 형태를 띠고 있어,¹⁰⁾ 문서목간에는 포함시키지 않고자 한다.

가야2956은 목서면이 두 면뿐이지만 형태적으로 다면목간이며, ‘十一月十’, ‘十一月’, ‘十一月五’ 등의 문구가 확인되어 월별로 무언가의 수량을 기록한 문서목간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가 많고, ‘廿月’과 같은 독특한 표현도 등장하여 아직 전반적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단계라 하겠다. 이를 문서로 보지 않고 연습용, 곧 習書로 파악한 견해도 있다.¹¹⁾

이에 본고는 문서목간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당하며 내용의 파악이 어느 정도 가능한 가야1602, 가야2645, 가야5598의 세 목간을 대상으로 삼아,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판독과 해석을 시도하고, 이를

5) 尹善泰, 2012, 「咸安 城山山城 出土 新羅 荷札의 再檢討」, 『사림』 제41호, p.162.

6) 전덕재, 2012, 「한국의 고대목간과 연구동향」, 『목간과 문자』 9호, p.24.

7) 최장미, 2017, 「함안 성산산성 제17차 발굴조사 출토 목간 자료 검토」, 『목간과 문자』 18호, p.202.

8) 尹善泰, 2012, 앞의 논문, p.162.

9) 金昌錫, 2016, 「함안 성산산성 木簡을 통해 본 新羅의 지방사회 구조와 수취」, 『百濟文化』 第54輯, p.148.

10) 이는 ‘此發’로 시작하는 가야5601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11) 金昌錫, 2016, 앞의 논문, p.148.

통해 몇 가지 논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가야2645와 村主의 入役者 관리

가야2645목간은 발굴보고서 연번 122, 도면·사진 번호 600에 해당하며, 길이 25.0cm, 너비 3.4cm, 두께 2.8cm의 사면목간으로서, 네 면에 모두 목서가 서사되었다. 『한국 목간자전』에 [城]221이라는 넘버링으로 적외선 사진이 공개되면서 관심을 받기 시작되었다. 이 목간에 처음 주목한 이승재는 당시까지 성산산성에서 출토된 목간 가운데 기록의 양이 가장 많은 목간임을 지적하면서, 일정한 형식을 갖춘 한국 최초의 문서목간이며, 한국 최초의 이두 문자가 기록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하였다.¹²⁾ 다만, 이견의 여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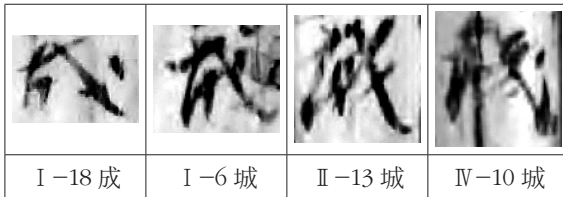


그림 1. 가야2645(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7, 『韓國의 古代木簡 II(학술총서 제69집)』, pp.356-359)

12) 李承宰, 2013b, 「함안 성산산성 221호 목간의 해독」, 『韓國文化』 6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pp.3-4.

있는 판독에 기반한 해석 중에는 다른 연구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는 부분들도 많았다. 이후 수정된 판독 혹은 해석들이 제시되면서,¹³⁾ 인력 동원과 관련된 촌주의 보고를 담은 문서목간이라는 점은 대체로 인정받고 있다.

이 목간은 많은 글자가 확인되지만, 중간 중간 명확히 판독을 확정짓기 어려운 부분들이 남아 있다. I 면의 두 번째 글자는 ‘月’로 판독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왼쪽 세로획만 확실하다. 기존에 ‘月’의 오른쪽 부분으로 간주해 왔던 부분은 공교롭게도 목간에 나 있는 흠집 모양과 일치한다. 다만, 문장 첫 부분에 등장하는 ‘숫자 + 月中’의 사례가 많은 편이므로 ‘月’字가 서사되었을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판단되어, ‘月’로 추독하는 것은 인정 가능하다고 본다. 네 번째 글자의 남아 있는 모습은 ‘口’와 유사하나, 오른쪽 내려지는 획이 꺾이고 있어 확실하지 않다. I 면 여섯 번째 글자와 열여덟 번째 글자, II 면 열 세번째 글자, IV 면 열 번째 글자는 형태적으로 유사한데, I 면 열여덟 번째 글자만 좌·우측의 획이 적어 ‘成’으로 판독하고, 나머지는 ‘城’으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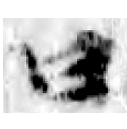





I 면 일곱 번째 글자는 오른쪽 흠집을 제외하고 보면 ‘二人’의 습字와 유사하지만 확정짓기 어렵다. 뒤에 등장하는 ‘村主’를 감안할 때, 村名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 여덟 번째 글자는 ‘耆’로 추정하기도 했으나,¹⁴⁾ 획이 하나 더 많아서 ‘看’에 가깝다고 여겨진다. 역시 村名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13) 이용현, 2015,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 221호의 국어학적 의의」, 『口訣研究』 第34輯, 金昌錫, 2016, 앞의 논문, p.148.
 金昌錫, 2017, 「咸安 城山山城 17차 발굴조사 출토 四面木簡(23번)에 관한 試考」, 『韓國史研究』 177, pp.140-144.
 박남수, 2017, 「신라 법흥왕대 ‘及伐尺’과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役法」, 『新羅史學報』 40, pp.60-61.
 백두현, 2018, 「월성 해자 목간의 이두 자료」, 『목간과 문자』 20호, pp.277-279.
 강나리, 2019, 「신라 중고기의 代法과 역역동원체계 -함안 성산산성 출토 218호 목간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93, pp.248-249.

I 면의 열두 번째 글자는 ‘白’으로 판독하고, 앞뒤 글자와 함께 ‘敬白之’의 문구를 갖춘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월성해자 출토 新2호(임392(2016) 목간)의 “小舍前敬呼白”, 新3호(임418(2016) 목간)의 “典中大等敬白” 등을 감안할 때 ‘敬白之’의 문구는 익숙하게 느껴짐이 인정된다. 다만, 자형상으로는 좌측 상단에 점이나 확인되지 않아 ‘日’ 혹은 ‘日’로 보인다. ‘敬日’로서 村主의 이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뒤에 관등이 확인되지 않고, 가야5598에도 村主의 이름은 명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목간에서도 村主의 이름은 생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이 글자는 ‘日’로 판독하고자 한다. 의미상으로는 ‘말하다’인 ‘日’이 ‘사퇴다’인 ‘白’과 유사하므로 바꾸어 쓴 것이 아닐까 추정해 본다. 한편적으로 ‘日’ 다음에는 ‘之’와 같은 대명사가 나오기보다는 인용문이 바로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白’을 대체하면서, ‘白’과 같이 ‘日之’라고 쓴 것이거나, ‘之’가 뒤의 글자에 붙어 ‘~로 가다’의 의미로 쓰였을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아울러 III면의 다섯 번째 글자 또한 납작한 비율을 감안할 때 ‘日’로 판독하는 것이 가능하다.

				
I-12 日	III-5 日	II-18 日	IV-2 日	IV-16 白

I 면 열여덟 번째 글자는 ‘行’으로 판독한 경우가 많고,¹⁵⁾ ‘𠂔’으로 판독하기도 하였으나,¹⁶⁾ 왼쪽 상단의 점으로 간주된 부분은 목간에 난 흠집으로서 실획에서 제외해야 한다. 해당 부분을 제거한 형태는 ‘令’에 가깝지 않나 한다. 오히려 ‘行’과 비슷한 자형은 I 행 열다섯 번째 글자에서 찾을 수 있다.









			 令 宋克	 令 皇象 急 兢 章
I-18 사진	I-18 적외선	I-18 흠집 제거	令	
		 行 趙孟頫 天冠山詩帖	 行 沈德潛	 行 明 王鏊
I-15 사진	I-15 적외선	行		

14)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7, 앞의 책, p.356 및 강나리, 2019, 앞의 논문, p.248.

한편, 李丞宰, 2013b, 앞의 논문에서는 ‘邦’일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金昌錫, 2017, 앞 논문에서는 ‘邦’으로 판독하였다.

15) 손환일 편저, 2011, 앞의 책, p.259; 尹善泰, 2012, 앞의 논문, p.162; 李丞宰, 2013b, 앞의 논문, p.7; 이용현, 2015, 앞의 논문, p.45; 金昌錫, 2016, 앞의 논문, p.148; 金昌錫, 2017, 앞의 논문, p.140; 박남수, 2017, 앞의 논문, p.60.

Ⅱ면 첫 두 글자는 판독하기 어렵다. 智로 끝나고 있으므로 一伐 관등 소지자의 이름으로 여겨진다. Ⅱ면의 열일곱 번째 글자는 ‘六十’의 合字로 판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六’의 오른쪽에 해당하는 부분은 목간이 손상되어 있어 획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남아 있는 부분은 ‘六十’의 合字와 유사함이 인정된다. 그와 더불어 주목되는 것이 Ⅳ면의 첫 번째 글자이다. 기존에는 모두 卒로 판독하여 특정인의 사망과 연관지어 해석하거나,¹⁷⁾ 어떤 일을 마친다는 의미로 파악했다.¹⁸⁾ 그런데 해당 글자는 이 목간 書者가 ‘六’을 쓰는 방법에 비추어 볼 때 ‘六十’의 合字로도 판독 가능하다. 사실, ‘卒’字 중에는 형태적으로 ‘六十’의 合字와 구분이 잘 되지 않는 사례들도 많다. 그렇다면 맥락을 통해 판단해야 할 텐데, Ⅱ면에도 ‘六十’의 合字가 ‘日’과 결합하여 등장하고 있음이 인정된다면, 이 또한 ‘六十’의 合字로 판단하는 편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Ⅱ-17	Ⅳ-1	Ⅰ-1 六	Ⅱ-10 六
 北魏 元帝神嘉誌	 北魏 高貞碑	 北魏 元延明嘉誌	 唐 殷令名 裴鏡民碑
‘六十’의 合字와 유사한 ‘卒’			

Ⅲ면은 보이는데도 판독이 잘 되지 않는 글자들이 많은 편이다. 여덟 번째 글자는 자획이 선명히 보이거나 마땅한 글자를 비정하기 어렵다. 신라에서 만든 造字일 가능성도 있겠다. 다음 아홉 번째 글자는 ‘卍’과 유사하지만 첫 세로획이 바깥쪽으로 뻗어 있어, 세로획들이 안쪽으로 보이는 다른 사례들과 조금 달라 일단 ‘卍’로 판독하였다. 다만, ‘卍’을 특이하게 서사한 것일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본다. 첫 두 글자와 마지막 세 글자는 판독 미상자로 두었다. 이상의 검토에 기반하여 발표자의 판독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6) 강나리, 2018, 「문자자료를 통해 본 6세기 신라의 율령과 역역동원체계」, 『6세기 금석문과 신라 사회』, 한국고대사학회 제20회 하계세미나 발표문, p.149.

17) 李承宰, 2013b, 앞의 논문 및 박남수, 2017, 앞의 논문.

18) 이용현, 2015, 앞의 논문 및 강나리, 2018, 앞의 발표문, p.149.

I : 「六月中馮城(看)村主敬日之鳥(行)成令之」

II : 「智伐大也功六城從人丁卒日」

III : 「走(石)日率此(升)更」

IV : 「卒日治之人此人(鳥)(馮)城(置)不行遣之白」

기본적으로 □馮城 □看(?)村의 村主가 어딘가에 보고하는 내용의 문서임은 쉽게 인정된다. I 면의 ‘日’로 보고 내용이 시작되고, IV면 마지막이 ‘白’으로 끝나고 있다. 이는 중고기 신라 비문에 보이는 “敎…敎”, “誓 … 誓” 등과 더불어 “(동사)하기를 ~라고 (동사)하다.”라는 신라의 문장 양식 투식임이 지적된 바 있다.¹⁹⁾ 아울러 다음에 다룰 가야5598 목간 또한 “白 … 白之”의 형식이 반복되고 있어, 두 목간이 형식적으로 유사함을 보여준다. 이에 〈某月中 - 某村主 白(白之) - 보고 내용 - 白之(白)〉이 신라 중고기 지방사회에서 촌주가 상부 기구에 上申할 때 사용한 보고문서의 書式이었다고 보기도 한다.²⁰⁾

가야5598 목간과의 유사점은 그에 그치지 않는다. III면의 다섯 번째 글자를 ‘日’로 판독할 경우, ‘日’ 이하에 인용되는 말을 한 주체는 앞의 □□走石이라고 판단된다. 보고 내용 속에 보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겠지만, 가야5598 목간 또한 보고자인 眞乃滅村主의 보고 내용 속에 伊毛羅 及伐尺이라는 또 다른 인물의 말이 다시 인용되었다. 제3의 인물이 그 보고와 관련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가야2645 목간에 보이는 □□走石의 역할은 무엇이였을까? III면의 ‘日’ 다음에는 ‘率此…’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을 ‘인솔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III면 아홉 번째 글자를 ‘卍’으로 판독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가 인솔하는 인원의 수와 관련될 숫자일 수 있다. 다음에 보이는 ‘更’ 또한, 현재로서는 앞·뒤에 판독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漢代의 兵·徭役으로서 更卒, 更役의 ‘更’을 연상케 하는 측면이 있다. 특히 ‘更’이 교대 방식이나 복무 기간에 관련된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이 주목된다.²¹⁾

II 면의 ‘人丁’을 감안할 때, 촌주의 보고 내용은 人丁의 동원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진다. 徭役이나 軍役 등 力役 동원을 상징할 수 있다. 6세기 말 신라의 축성 과정에 城이나 村 단위의 인원들이 ‘徒’를 이루어 작업에 참여하고 있음은 〈남산신성비〉를 통해 확인되는 바이다. 모든 村主들이 村을 비우고 이들을 인솔해서 직접 작업 현장에 머무르면서 지휘·감독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실질적인 인솔·지휘·감독 업무는 村主를 대신하여 현장에 파견된 다른 인물들이 담당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走石 역시 촌주를 대신하여 어떤 城에 役夫들을 인솔하고 가는 임무를 맡은 존재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목간에는 또 다른 인물도 확인된다. II 면에 □□智 一伐이라는 인물이 보인다. 그렇다면 이

19) 이용현, 2015, 앞의 논문, pp.47-49.

20) 金昌錫, 2017, 앞의 논문, pp.134-135.

21) 李成珪, 2009, 「前漢 更卒의 徵集과 服役 方式 -松柏木牘 47호의 분석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第109輯 참조.

인물과 □□走石은 어떠한 관계일까? □□智 一伐 또한 뒤에 ‘從人丁’과 ‘60日’이라는 기간이 나오고 있어, 역시 人丁을 데리고 일정 기간 동안 역역을 담당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에게 정해진 역역 기간은 60일이 된다. 60일 동안 임무를 다했다면 □□智 一伐과 정해진 기간을 채운 인원들은 새로운 인원들과 교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새로운 인원들을 인솔해 갈 사람이 필요할 텐데, □□走石이 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Ⅳ면에는 ‘六十日治之人’이 보이는데, 기존에는 ‘治之人’을 ‘책임자’로 해석하였다.²²⁾ 그렇다면 ‘治之人’은 책임자로서 60일 人丁들을 지휘·관리해야 했을 □□智 一伐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다. 단, ‘治’에는 ‘다스리다’는 의미 외에 ‘만들다’나 ‘짓다’, ‘수리하다’ 등 작업을 가리키는 뜻도 있으므로,²³⁾ 60일에 걸친 人丁들의 작업 자체를 의미한다는 해석 또한 가능하다. 이렇게 볼 경우 ‘六十日治之人’은 60일간 작업한 사람들, 곧 60일의 정해진 역역 기간을 마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된다. 정해진 기간을 마쳤으므로, 이들은 □□走石이 인솔해 온 새로운 役夫들과 교대하여 집으로 보내져야 했다. 그런데 이들(此人)을 작업이 이루어지던 城에서 보내주지 않았다면(置不行遣之), 村主가 해당 城 혹은 상위 행정 단위에 문서를 보낼 만한 사안이 되기에 충분할 것이다.²⁴⁾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해석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I : 6月(?)에 □馮城 □看村主가 삼가 말하건대, … 이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 II : □□智 一伐이 …인데, 功이 … 大城에 따라 간 人丁은 (복역일이) 60일입니다.
- III : □□走石(?)이 말하기를, 이 …를 인솔하여 … 20(?) 更 …
- IV : 60일 동안 작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烏馮城에 두고 行하여 보내지 않는다고 함을 사릅니다.

이렇게 보면, 역역 동원에 있어서 村主의 역할은 단순히 중앙의 명령을 받아 入役할 인원을 보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정해진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맞추어 교대할 새로운 인원을 파견하고, 기간을 채운 인원들의 귀환도 확인하며 상위 행정 단위와 협의해야 했다. 이를 위해서 현장에 파견된 담당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상황을 파악했을 것이다. 力役 동원에 있어서 村主와 그를 대신해 파견된 현장 담당자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정황을 보여주는 또 다른 목간이 가야5598이다.²⁵⁾

22) 이용현, 2015, 앞의 논문, p.55.

23) 居延漢簡에도 戍卒들의 작업 내용으로 治整, 治簿 등이 확인된다(Michael Loewe, 1967, *RECORDS OF HAN ADMINISTRATION Volume II DOCUMENTS*, pp.123-127의 MD14-1(286.29/61/7) 및 MD15-3(203.8) 등).

24) I 행에서 □看村의 상위 행정 단위로 나오는 □馮城과 작업한 이들을 보내주지 않고 있는 烏馮城이 동일한 실체인지는 현재 판독이 어려운 글자 때문에 확인하기 어렵다. 단, 烏馮城에서의 문제에 대해 烏馮城의 책임자, 혹은 그보다 상위의 책임자에게 호소하는 내용임은 짐작할 수 있다.

25) ‘村’과 ‘一伐’의 외위 소지자가 등장하고, ‘功’에 따른 ‘受’, ‘往’, ‘留’ 등의 내용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 외에 신 출토 월성해자 임069(2016)(목간 新1호)와도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해당 목간에 대해서는 전경효, 2018, 「신 출토 경주 월성 해자 묵서 목간 소개」, 『목간과 문자』 20호, pp.66-68 및 윤선태, 2018, 「월성 해자 목간의 연구 성

III. 가야5598과 役夫의 식량 조달

가야 5598은 2014년부터 2016년에 걸쳐 진행된 제 17차 발굴조사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처음 공개될 때는 1번으로 넘버링되었으며, 이후 출토번호 w150으로도 소개된 바 있다.²⁶⁾ 길이 34.4cm, 너비 1.0~1.3cm, 두께 1.6~1.9cm의 사면목간으로서, 사면에 모두 목서가 서사되었다. 공개될 당시부터 문서목간으로 주목받았다.

적외선 촬영을 거치지 않고도 대부분의 글자들이 판독될 정도로 상태가 양호하여, 가야2645에 비해서 판독의 이점은 적은 편이지만, 논란이 되는 몇 글자들이 있다. II면의 첫 글자는 ‘此’로 판독한 바 있으나,²⁷⁾ 글자의 우측 부분만 남아 있고, 왼쪽의 떨어져 나간 부분 위쪽으로도 묵흔이 보여 ‘此’로 보기는 어렵다. 판독 미상 글자로 남겨 둔다. 두 번째 글자는 일부가 떨어져 나갔지만 ‘城’으로 판독하기에 충분한 부분들이 남아 있다. III면 첫 글자 역시 상당 부분이 훼손되었는데, 남은 부분을 통해 ‘即’으로 추측하고 있다.

II면의 여섯 번째 글자가 余(尔)로 볼 것인지,²⁸⁾



그림 2. 가야5598 적외선 사진(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7, 앞의 책, pp.418-4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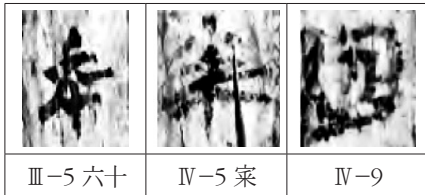
과와 신 출토 목간의 판독, 『목간과 문자』 20호, pp.94-95 참조).

26) 최장미, 2017, 앞의 논문, pp.201-202.

27) 손환일, 2017,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의미와 서체 -17차 발굴조사 성과 발표문을 중심으로-」, 『韓國史學史學報』 35, p.8.

28) 최장미, 2017, 앞의 논문; 이부오, 2017, 「6세기 초중엽 新羅의 非干外位 운영과 及伐尺」, 『한국고대사탐구』 26; 윤선태, 2017, 「함안 성산산성 출토 신라목간의 연구 성과와 전망」, 『韓國의 古代木簡 II (학술총서 제69집)』,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김창호, 2018, 「咸安 城山山城 木簡의 新考察」, 『文化史學』 第49號; 강나리, 2019, 앞의 논문, p.237.

耒(耒)²⁹⁾ 혹은 木으로 볼 것인지³⁰⁾ 판독이 갈리는데, 여기서는 ‘尗’의 판독안을 따르고자 한다. IV면 두 번째 글자도 他(최장미, 이부오, 박남수, 김창호), 沃(金昌錫, 전덕재), 毛(이수훈) 등 여러 판독안이 제시된 바 있으나, 적외선 사진에 보이는 희미한 가로획의 존재를 인정하여 ‘毛’라는 판독을 받아들인다(윤선태, 강나리). 단, 이 두 글자는 인명의 일부로서 해석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해석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부분은 먼저 Ⅲ면의 다섯 번째 글자이다. 이 글자에 대해서는 ‘本(本)’으로 판독하는 견해(박남수, 전덕재)와 ‘六十’의 合字로 파악하는 입장(최장미, 金昌錫, 손환일, 이부오, 이수훈, 윤선태, 강나리)이 있다. 상부에 의도적으로 점을 찍은 것이 확인된다는 데 주목하여 여기서는 ‘六十’의 合字로 보는 판독을 따른다. IV면 일곱 번째 글자는 案(金昌錫·박남수·이수훈·윤선태·강나리)과 案(최장미·손환일·이부오·전덕재)로 판독안이 갈려 있다. 두 판독안 모두 가능성이 인정되지만, 의미상으로 볼 때 녹봉을 의미하는 ‘案’가 及伐尺과 言 사이에 갑자기 등장하는 것은 어색해 보이므로 審의 本字인 ‘案’으로 판독하겠다.

IV면 아홉 번째 글자는 정확히 일치하는 글자를 찾기 어렵다. 廻(金昌錫, 전덕재, 강나리)나 回(이수훈)로 판독하기도 하였으며, ‘驅’의 이체자 ‘迺’와 ‘力’이 결합된 조합자로 보는 견해(박남수)도 나와 있다. 확신하기 어려워 미판독자로 남겨두고자 한다. 이상의 검토에 기반한 판독문은 다음과 같다.

- I : 「三月中 真乃滅村主儂怖白」
- II : 「口(城)在弥即尗智大舍下智前去白之」
- III : 「圓白 先節卒日代法稚然」
- IV : 「伊毛罹及伐尺(案)言口法卅代告今卅日食去白之」

白으로 시작해서 白之로 끝나는 형식이 반복되고 있음은 일찍부터 지적된 바와 같다. 白의 주체는 真乃滅村主이다. II면에서 白의 주체가 바뀌어 弥即尗智 大舍가 下智에게 白하였다고 보고, III면의 ‘即白’

29) 金昌錫, 2017, 앞의 논문; 전덕재, 2017, 「중고기 신라의 대(代)와 대법(代法)에 관한 고찰 - 함안 성산산성 17차 발굴조사 출토 사면 문서목간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105; 이수훈, 2017, 「함안 성산산성 출토 4면 목간의 代 - 17차 발굴조사 출토 23면 목간을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105, 부산경남사학회.

30) 박남수, 2017, 앞의 논문.

의 주체는 다시 Ⅱ면에 나오는 ‘下智’라고 본 견해도 있지만,³¹⁾ 大舎가 무관등자에게 ‘白’하는 정황이나 Ⅰ면에서 언급된 白의 주체가 Ⅱ면, Ⅲ면으로 넘어가면서 계속 바뀐다는 해석은 문맥상 어색하게 느껴진다.³²⁾ Ⅰ면의 白과 Ⅲ면의 即白 모두 그 주체는 문서 보고의 발신자로서 眞乃滅村主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Ⅱ면의 弥即余智 大舎·下智는 白을 받는 대상, 수신자가 된다.

Ⅳ면 마지막 부분의 ‘去’는 앞의 ‘食’과 연결하여 ‘식료를 없애다’(金昌錫), ‘먹어버렸다’(전덕재)나 ‘먹고 가버렸다’(최장미, 강나리), ‘먹고 갔다’(윤선태)로 해석하기도 했으나, 형식적으로 ‘白 … 去白之’가 두 번 반복된다고 파악하는 편이 자연스럽다. 弥即余智 大舎·下智가 村主와 같은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口城에 있으므로 ‘가서 사된다’는 의미로 ‘去’가 白 앞에 붙었다고 생각된다. Ⅰ·Ⅱ면의 ‘白’과 ‘去白之’ 사이에 나오는 것은 보고를 받는 대상이므로, 실질적 보고 내용은 Ⅲ면의 ‘白’과 Ⅳ면의 ‘去白之’ 사이에 해당한다. 곧, 先節로 시작하여 今卅日食에서 끝나는 문장이다.

보고 내용의 문장 중에 伊毛羅 及伐尺이라는 별도의 인물이 審言하여 告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보고 내용 중 다른 사람의 말이 인용되는 형식이 가야2645와 유사하다. 여기서 伊毛羅 及伐尺이 審言한 告를 받은 주체는 眞乃滅村主이다. 그렇다면 伊毛羅 及伐尺은 眞乃滅村主의 관리 하에 있는 인물로 볼 수 있다. 그를 가야2645에 보이는 口口智 一伐이나 口口走石처럼 村主를 대신하여 入役하는 村民을 인솔해서 力役 동원 현장에 나가 작업을 지휘·관리한 담당자로 상정하고자 한다.

Ⅲ면과 Ⅳ면에 각각 ‘六十日代’와 ‘卅代’가 확인되므로, 보고 내용의 핵심은 ‘代’와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代’를 수전 1속에서 거둘 수 있는 벼의 수확량에 기반하여 한 사람이 하루에 먹었던 벼의 양을 가리킨다고 해석하기도 했으나,³³⁾ 수확량과 관련된 토지면적 혹은 그에 바탕을 둔 벼의 양,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규정한 법률로서의 ‘代法’이, 세금 수취 정황이 아니라 특정 인물의 糶(녹봉) 지급 관련해서 村主로부터 某城의 大舎에게 보고되는 상황에 ‘稚然’하다고까지 언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

이 목간에서 ‘代’는 60日과 30(日) 등 날짜와 관련되며, 食과도 결부되는 단위이다.³⁴⁾ 역역에 동원되어서 작업해야 할 기간과 연관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代’는 ‘교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군사·행정에 관련하여 漢代부터 교대의 의미로 쓰여 왔음을 감안할 때,³⁵⁾ 이 목간에서의 代도 ‘교대’를 의미한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앞서 가야2645에서도 기존의 역역 일수를 채우고 새로운 入役者들로 교체되어야 하는 교대 상황을 상정한 바 있다. 60일·30일이 교대 기간이라면, 이는 60일·30일마다, 혹은 60일·30일을 채우고 교대한다는 의미이므로, 실질적으로 역역 동원 기간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³⁶⁾

그렇다면 ‘六十日代法’은 “60일 만에 교대하는 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기존에는 여기서의 ‘法’을 법

31) 金昌錫, 2017, 앞의 논문, pp.135-138.

32) 전덕재, 2017, 앞의 논문, pp.194-195.

33) 전덕재, 2017, 앞의 논문, pp.197-208.

34) 이수훈, 2017, 앞의 논문, pp.171-172.

35) 강나리, 2019, 앞의 논문, pp.245-247.

36) 보다 복잡하지만, 漢代의 ‘更’도 교대의 단위이자 근무 기간의 단위로 파악되고 있다(李成珪, 2009, 앞의 논문).

전의 항목이나 法수 자체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³⁷⁾ 그런데 일개 村主가 상위 행정 단위에 보고하면서 법전의 조항이나 법령을 ‘稚然’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다. 이에 ‘法’을 ‘六十日代’에서 분리하고, 뒤의 ‘稚然’에 붙여 “60日代는 法에 (제대로 따르지 않은) 유치한(미숙한) 판단이었습니다.”로 해석한 견해도 있다.³⁸⁾ 그러나 ‘法稚然’이라는 구절만으로 “법에 따르지 않은 미숙한 판단”을 나타려고 했다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으리라 여겨진다. ‘六十日代法’은 ‘稚然’하다고 평해도 무방한 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法’은 法令이나 法典, 법조항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방법·作法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는 法”을 의미하는 “...之法”의 사례는 흔히 찾아볼 수 있다.³⁹⁾ 이를 감안할 때 ‘六十日代法’을 “60일 만에 교대하는 방법”으로서, 국가에서 정해서 내려보낸 법조항이 아니라 村主가 주어진 작업량을 달성하기 위해 정해서 이전에 보고했던 교대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명활산성 작성비>나 <남산신성비>를 보면, 축성의 徭役에서 할당되는 것은 日數가 아니라, 步/尺/村으로 정해진 길이, 즉 작업량이었다. 해당 작업량을 완수하기 위한 인원의 할당이나 교대 기간 등은 村主가 조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Ⅲ면에 따르면 眞乃滅村主가 이전에 보고했던 교대 기간은 60일이었다. 그러한 교대 기간, 곧 작업 일수의 상정은 이 문서의 보고자인 村主 자신의 결정이었으므로 稚然했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교대 방법을 □하여 30일 교대로 바꾸겠다고 말한 伊毛羅 及 伐尺은 현장에 파견된 혹은 파견될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그가 현장 상황이나 인력의 실태를 훑은 결과 기존의 60일 교대가 아니라 30일 교대여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村主에게 고했던 것이다.⁴⁰⁾

이를 받아들인 촌주는 弥即尔智 大舍·下智에게 궁극적으로 30日 食을 사뢰게 된다. 30日 食은 30일 분량의 식량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동원된 인력들이 해당 力役 장소에서 식량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는 일반적인 관점에 따른다면, 해당 城에 30일 분량의 식량을 준비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 된다. 入役者들이 자신의 식량을 직접 가지고 갔다고 보거나,⁴¹⁾ 소속지에서 전체 혹은 일부의 식량을 보내주었다고 보는 입장의 경우,⁴²⁾ 30일 분량의 식량만 보내겠다는 통보나 허가 요청이 되겠다.

기존에는 I 면의 ‘濃佈’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여 ‘괴로워 떨어야 할’ 만한 사유와 관계된 ‘사죄’의 내용으로 이해한 경우가 많았으나, 내용 중에는 구체적 사죄의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白’ 바로 앞이라는

37) 金昌錫, 2017, 앞의 논문; 이부오, 2017, 앞의 논문, p.30; 윤선태, 2017, 앞의 논문, p.491.

‘代法’을 특정 법령 혹은 법조항으로 보지 않고 ‘(법대로 하지 않고) 대신한 (임의적인) 법’으로 간주한 견해에서도, IV 면의 □法이라는 법조항을 전제로 하고 있다(박남수, 2017, 앞의 논문, pp.46-64).

38) 이수훈, 2017, 앞의 논문, p.170.

39) 『漢語大詞典』에서 든 예문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墨子」辭過, “爲宮室之法 日高足以辟潤濕 邊足以圍風寒 ……”

「文心雕龍」附會, “駢文之法 有似於此”

40) 현재의 건설 현장에서도, 현장 관리 책임자의 미덕은 ‘공기 단축’에 있다.

41) 박남수, 2017, 앞의 논문.

42) 이재환, 2018, 「함안 성산산성 출토 신라 荷札의 성격에 대한 새로운 접근」, 『韓國史研究』 182.

‘濃佈’의 위치를 볼 때 ‘敬曰’ 등에 보이는 검사로 파악하는 편이 자연스럽다.⁴³⁾ 다음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른 해석문이다.

- I : 3월에 眞乃滅村主가 괴로워 떨며 사뢰니,
- II : □城에 계신 弥即余智 大舍와 下智 앞에 가서 사뢰니다.
- III : 곧 사뢰기를, 앞선 때 60일의 교대 방법은 어리석었습니다.
- IV : 伊毛羅 及 伐尺이 살펴 말하기를 방법을 □하여 30(日)으로 교대하겠다고 고평하니, 지금 30일의 식량으로써 가서 사뢰니다.

이렇게 본다면 村主가 역역 동원 과정에서 맡은 역할은 굉장히 많았던 것이 된다. 실질적인 작업을 지휘·관리할 책임자를 선발하고, 할당된 작업량에 맞추어 파견할 人丁의 수와 교대 기간을 산정한 뒤, 관리 책임자로 하여금 인솔해 가서 정해진 기간 동안 복역하도록 한다. 이후에도 귀환을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현장의 담당자와 소통하면서 소속 村民을 관리하여 잘 귀환시킨다. 그 과정에서 역역에 동원된 村民들이 해당 장소에서 먹을 식량의 조달 또한 村主가 신경써야 할 부분이었다. 한편, 역역 현장에서도 村별로 인원 상황을 관리해야 했음을 물론이다. 그와 관련하여 또 다른 문서 목간 가야 1602가 주목된다.

IV. 가야1602와 다면목간의 줄맞춤

가야1602는 2006년 11월 13일 출토되었으며, 2007년에 보존처리 과정에서 목서가 확인되었다고 한다. 12차 발굴조사 현장설명회자료에서는 w40으로 소개되었고,⁴⁴⁾ 『나무 속 암호 목간』에 06-w40이라는 넘버링으로 컬러사진과 적외선 사진이 실렸다.⁴⁵⁾ 『한국목간사전』은 [城]127으로 넘버링하였다. 발굴보고서의 연번 28, 도면·사진번호 506에 해당한다. 잔존 길이 26.4cm에 너비 2.0cm, 두께 1.2cm의 사면목간인데, 목서는 정면과 측면의 두 면에만 서사되었다.

‘丁’과 숫자, ‘村’ 등이 확인되어 공개 당시부터 축성에 동원된 인력자료로 추정하였다. 『나무 속 암호 목간』에서는 “□□丁十一”이 기록된 면을 I 면으로 보고 “丁廿二益丁四”가 기록된 면을 IV 면으로 보았으나, II·III 면을 비워둔 것이 되어 어색하다. 『한국목간사전』에서는 “□□丁十一”이 기록된 면을 I 면

43) 居延漢簡 등에서도 ‘叩頭死罪’와 같은 검사가 ‘白’, ‘敢言之’ 앞에 등장하는 사례들을 흔히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들이 정말 죽을 죄를 지어 머리를 조아리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謝桂華·李均明·朱國韶, 1987, 『秦漢魏晉出土文獻 居延漢簡釋文合校 上冊』, 文物出版社 참조).

44)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07, 앞의 책.

45) 국립부여박물관·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편저, 2009, 『나무 속 암호 목간』, 예맥, pp.102-103.



그림 3. 가야602 적외선 사진(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7, 앞의 책, pp.154~157)

으로, “丁廿二益丁四”가 기록된 면을 Ⅱ 면으로 보았는데, 일반적인 한문 문서의 서사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 『韓國의 古代木簡 Ⅱ』와 같이 “丁廿二益丁四”가 기록된 면을 Ⅰ 면으로, “□二□丁十一”이 기록된 면을 Ⅱ 면으로 보고, Ⅲ·Ⅳ면은 서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는 편이 자연스럽다. Ⅰ 면 첫 번째 글자 ‘丁’ 위에 보이는 점은 항목이 시작되거나 집계 부분이 시작된다는 표시로 찍은 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판독 중 사소하게 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애초에 남아 있는 글자가 많지 않다. 마, 더덕 등이 표기된 것으로 파악한 견해도 제기된 바 있으나,⁴⁶⁾ 村別로 동원된 丁의 현황이나 증감을 기록한 장부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⁴⁷⁾ 본고에서 제시하는 판독안은 다음과 같다.

Ⅰ : 「V	• 丁廿二益丁四 村… ×
Ⅱ : 「V	□二□丁十一 村… ×
Ⅲ : 「V	×
Ⅳ : 「V	×

Ⅰ 면에 丁 22명과 益丁 4명을 기록하였다. Ⅱ 면은 판독이 어려운 글자들이 있지만, 丁 11명이 확인된다. 두 면 모두 丁의 數 다음에 공백을 두고 ‘村’이 씌여 있다. 村 다음에도 글자가 있음은 분명하나 목간 자체가 잘려져 나갔다. 村 단위의 丁 인원수와 인원 증감을 기록한 장부의 일부임은 충분히 인정되는 바이다.

역역 동원 과정 중 村에서 구체적인 인원 동원과 교대 기간 등을 책정했다 하더라도, 동원된 인원의 명단이나 수가 역역을 수행할 장소에 보고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성산산성에서 출토된 다수의 목간들에 대해서 초기에는 이러한 동원 인력들의 인명을 기록한 名籍이거나 신분증일 것이라고 추정할 적도 있었으나,⁴⁸⁾ 이후 연구가 진전되고 목간의 발견이 이어지면서 이제는 성산산성 목간의 대다수가 물품에 붙어 있던 꼬리표였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⁴⁹⁾ 그러나 현재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名籍이나 인원에 관련된 목록·장부가 존재했을 것임은 분명하며, 이 목간이 곧 그러한 명단이나 장부의 일부 혹은 관련된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村別로 인원수가 파악되는 모습은 앞서 가야

46) 李丞宰, 2013a, 「新羅木簡과 百濟木簡의 표기법」, 『震檀學報』 117, pp.181-182.
 47) 尹善泰, 2012, 앞의 논문; 이용현, 2015, 앞의 논문; 박남수, 2017, 앞의 논문.
 48) 김창호, 1998, 「咸安 城山山城 出土 木簡에 대하여」, 『咸安 城山山城 Ⅰ』, p.92.
 주보돈, 2000, 「咸安 城山山城 出土 木簡의 基礎的 檢討」, 『한국고대사연구』 19, p.58.
 박종익, 2000, 「함안 성산산성 발굴조사와 목간」, 『한국고대사연구』 19, p.25; 2002,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성격 검토」, 『한국고고학보』 48.
 49) 荷札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付札로 보는 견해도 나왔으나(박남수, 2017, 앞의 논문), 靑의의 付札, 곧 꼬리표에 포함됨은 마찬가지이다.

2645와 가야5598을 통해 확인한 村主와 그가 파견한 현장 책임자에 의한 역역 동원 인력의 관리 정황과 잘 부합된다.

그런데 가야1602 목간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내용보다도 형식에 있다. I면과 II면 모두 목간 최상단으로부터 약 17.5cm 정도를 비워두고 쓰기 시작했다는 점이 그것이다. 위 부분에 원래 글자가 있었는데 깎아내서 보이지 않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글자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다가, I·II면의 해당 부분부터 비교적 선명하게 글자가 완형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원래부터 지금 서사된 부분 위쪽으로는 글자가 씌여 있지 않았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앞서 언급한 I면 첫 ‘丁’字 위의 점도 해당 부분부터 문장이 시작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뒷받침해준다. 약 17.5cm의 상부 여백이 글씨를 쓰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아래쪽과 마찬가지로 서사면으로서 다음어져 있다. 그렇다면 이 목간의 I·II면은 어떠한 이유로, 무언가를 의식하여 위쪽을 비워두고 해당 부분부터 서사를 시작했다고 보아야 한다.

윗부분의 여백이 확인되는 다른 신라 문서목간의 사례가 있다. 월성해자 2호 목간(『한국의 고대목간』 149호, 『한국 목간자전』 [月]2)의 경우도 모든 면의 윗부분에 상당한 여백이 균등하게 부여되었음이 지적되었다.⁵⁰⁾ 이 또한 무언가를 의식하여 공통적으로 위쪽을 비워두고 서사를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목간을 무엇을 의식했던 것일까? 문제는 두 목간 자체에서는 의식하고 줄을 맞추어 대상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擡頭나 공격, 혹은 항목에 따라 줄을 맞추어 서사하는 것은 여러 줄로 서사가 이어지는 종이 문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양식이다. 여러 簡들을 편철할 경우에도 簡들 간에 맞춤이 의식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목간은 면당 한 줄씩 서사되었다. 각 면은 같은 위치에서 시작하고 있어 상호 줄맞춤을 의도하였다고 판단되나, 그 위치에서 시작되어야 할 기준은 목간 내에서는 찾아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들이 의식하고 있었던 ‘무언가’는 해당 목간 바깥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는 다면목간도 단독적으로 완결성을 가지는 문서가 아닐 수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서라고 하겠다.

일찍이 월성해자 출토 목간 중 다면·다행 목간 대부분이 문서 목간임에 비하여 동궁과 월지(안압지) 출토 목간에는 다면목간의 비중이 현격히 떨어진다는 점에서, 다면·다행 목간이 관청의



그림 4. 월성해자 2호 목간(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6, 『개정판 韓國의 古代木簡(학술조사보고 제32집)』, p.116-117)

50) 김병준, 2018, 「월성 해자 2호 목간 다시 읽기」, 『목간과 문자』 20호, pp.180-181.

장부나 행정문서용으로 6~7세기에 널리 사용되다가, 8세기 이후 종이의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다면목간을 대체해 간 것이라는 추정이 제기된 바 있다.⁵¹⁾ 나아가 다면 목간이나 원주형 목간이 단독간 대여섯 개를 끈으로 묶은 편철간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지적하고, 편철간을 경험한 전통 속에서 그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다면목간을 활발히 제작했을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중국 한대의 ‘편철간문화’와 고대일본의 ‘단책형목간문화’와 대비되는 한국고대의 ‘다면목간문화’를 제창하기도 하였다.⁵²⁾

반면에 고대 한국에서는 죽간이 배제된 목간의 문화가 전개되었다고 여기며, 초보적 문자생활을 시작하던 단계에 편철간 문화가 요구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다가 국가와 제도의 발전으로 더 많은 정보를 목간에 서사할 필요가 생기자 다면 혹은 원주형 목간의 사용이 확대되었다는 것이다.⁵³⁾ 이에 한국 고대 목간문화를 ‘단독간의 문화’로 규정하기까지 하였다.⁵⁴⁾ 두 입장 모두 다면목간의 경우는 단독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임을 전제로 두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하지만 가야1602 목간은 다면목간조차도 단독적이 아니라 다른 목간 혹은 다른 유형의 문서를 의식하면서 만들어지고 사용되었을 수 있음을 엿보게 한다. 그런데 다면목간은 목간을 돌려 가면서 각 면의 내용을 차례로 파악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므로, 편철간과 같은 방식으로 여러 개의 다면목간을 묶을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2장에서 살핀 가야2645 하단에 절입부가 있음이 주목된다. 이는 가야2645를 다른 무언가와 묶었던 사실을 보여준다.⁵⁵⁾ 가야2645는 荷札이 아니며, 내용 또한 人丁이나 특정 인물과 관련된 것이지 특정 물건을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물건에 매달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標題나 수신자·내용에 있어서 공통점을 가지는 다른 문서목간들과 함께 묶었던 것은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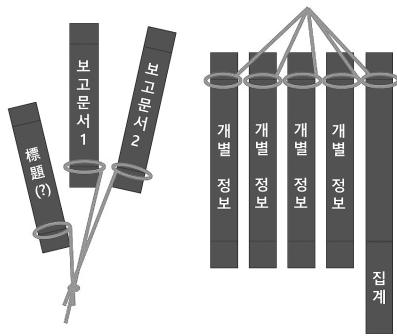


그림 5. 가야2645(左)와 가야5598(右)의 사용 방식 추정

가야2645의 내용 가운데 발신자인 村主는 확인되지만, 수신자를 찾기 어렵다는 점 또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가야5598은 누구 前인지 수신자를 명기하였고, 월성해자 2호 목간도 ‘大鳥知郎足下’라는 수신 대상을 밝혔다. 『안압지발굴보고서』 1호 목간이나 월성해자 10호 목간, 월성해자 新3호 역시 白을 받을 대상을 前 앞에 썼다.⁵⁶⁾ 문서의 수신 당사자는 생략하기 어려운 정보라 하겠다. 그렇다면 가야2645의 수신자는 아예 생략했다기보다 이 목간과 set를 이루며 함께 전달되었던 다른 문서목간 혹은 標題의 성격을 지닌 목간에 썼

51) 윤선태, 2005, 「월성해자 출토 신라 문서목간」, 『역사와 현실』 56, p.122.
 52) 윤선태, 2007, 「한국고대목간의 형태와 종류」, 『역사와 현실』 65, pp.168-170.
 53) 이경섭, 2013b, 「新羅 木簡文化의 전개와 특성」, 『民族文化論叢』 第54輯, pp.282-284.
 54) 이경섭, 2013b, 앞의 논문, p.282.
 55) 金昌錫, 2016, 앞의 논문, p.148에서도 이를 지적한 바 있다.
 56) 윤선태, 2018, 앞의 논문, p.89·pp.94-95 참조.

기 때문에 쓰지 않아도 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다면목간에는 단독간 몇 개에 해당하는 정보를 담을 수 있다. 하지만 문서 행정 중에는 그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은 정보도 오고가야 했을 것이다. 가야1602에 보이는 丁의 소속 村 혹은 村 하위의 세부 단위와 이름 등의 정보를 목간에 담을 경우, 村 하나에만 22명의 인원이 있었고, 다른 村도 적어도 11명 이상은 되었음을 감안하면, 다면목간이라 해도 하나에 모두 기록하기에는 부족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여러 개의 목간들로 구성된 명단 혹은 목록이 존재했고, 이를 집계한 가야1602는 다른 목간들에 기록된 내용들을 의식하면서 줄을 맞추어 윗부분을 비워두고 아래쪽부터 서사를 시작했던 정황을 상정할 수 있다.⁵⁷⁾

V. 맺음말

지금까지 함안 성산산성에서 출토된 세 점의 문서목간, 가야2645와 가야5598, 가야1602에 대한 나름의 판독과 해석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몇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거리들을 제시해 보았다. 가야2645는 원래 정해진 복역 기간 60일 동안 작업을 다 마치고 □□走石이 인솔하는 새로운 역역 동원자들과 교대해야 했을 □□智 一伐 휘하의 力役 동원자들을 烏馮城에서 보내주지 않자, 그들의 소속지인 □馮城 □看村主가 이러한 정황을 상위 행정단위에 보고하여 이들의 귀환을 요청한 문서로 파악하였다. 역역 동원에 있어서 村主와 그를 대신해 파견된 현장 담당자의 역할이 중요했음은 가야5598에서도 확인된다. 가야5598은 현장 담당자인 伊毛羅 及 伐尺이 현장 및 인원 현황을 검토한 결과 이전에 결정되었던 교대 기간 60일을 30일로 줄일 수 있음을 고하자, 眞乃滅村主가 30일분의 식량만을 준비하면 된다고 □城의 弥即尔智 大솜와 下智에게 보고한 문서로 보인다. 역역에 종사하는 인원들이 현장에서 村別로 관리되는 정황은 가야1602에도 나타나고 있다. 이 목간은 村 단위로 丁의 현황과 증감을 기록한 장부의 일부로 판단된다. 나아가 가야1602는 다른 무언가를 의식하여 위쪽을 비워두고 아래쪽부터 서사하였다는 점에서, 다면목간도 단독으로서 완결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함께 묶여서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단독간에 기반하였다고 간주되어 왔던 한반도 목간 문화의 새로운 면모를 엿볼 수 있다.

투고일: 2019. 4. 10.

심사개시일: 2019. 5. 10.

심사완료일: 2019. 5. 20.

57) 집계에 해당하는 가야1602는 다른 목간들에 비해 길었을 가능성도 있다. 성산산성 출토 목간 중 '구리벌'명 목간을 제외한 하찰들의 평균 길이는 20cm 전후인데(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8, 앞의 책, p.34), 하찰은 아니지만 名籍에 해당하는 목간들도 비슷한 크기였다면, 가야1602는 대체로 이들의 서사가 끝난 부분에 맞추어 서사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 된다. 묶여서 걸어 늘어뜨리거나 함께 나란히 늘어놓을 경우, 집계부분만 아래쪽으로 튀어나와 쉽게 인식될 수 있다.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07, 『함안 성산산성 12차 발굴조사 현장설명회자료』.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1, 『함안 성산산성 발굴조사 보고서 IV』.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7, 『韓國의 古代木簡 II (학술총서 제69집)』.
- 국립부여박물관·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편저, 2009, 『나무 속 암호 목간』, 예맥.
-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6, 『개정판 韓國의 古代木簡(학술조사보고 제32집)』.
- 손환일 편저, 2011, 『韓國 木簡字典』, 國立加耶文化財研究所.
- Michael Loewe, 1967, *RECORDS OF HAN ADMINISTRATION Volume II DOCUMENTS*.
- 강나리, 2018, 「문자자료를 통해 본 6세기 신라의 율령과 역역동원체계」, 『6세기 금석문과 신라 사회』, 한국고대사학회 제20회 하계세미나 발표문.
- 강나리, 2019 「신라 중고기의 ‘代法’과 역역동원체계 -함안 성산산성 출토 218호 목간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93.
- 김병준, 2018, 「월성 해자 2호 목간 다시 읽기 -중국 출토 고대 행정 문서 자료와의 비교-」 『목간과 문자』 20호.
- 김昌錫, 2016, 「함안 성산산성 木簡을 통해 본 新羅의 지방사회 구조와 수취」, 『百濟文化』 第54輯.
- 김昌錫, 2017, 「咸安 城山山城 17차 발굴조사 출토 四面木簡(23번)에 관한 試考」, 『韓國史研究』 177.
- 김창호, 1998, 「咸安 城山山城 出土 木簡에 대하여」, 『咸安 城山山城 I』.
- 김昌鎬, 2018, 「咸安 城山山城 木簡의 新考察」, 『文化史學』 第49號.
- 박남수, 2017, 「신라 법흥왕대 ‘及伐尺’과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役法」, 『新羅史學報』 40.
- 박종익, 2000, 「함안 성산산성 발굴조사와 목간」, 『한국고대사연구』 19.
- 박종익, 2002,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성격 검토』, 『한국고고학보』 48.
- 백두현, 2018, 「월성 해자 목간의 이두 자료」, 『목간과 문자』 20호.
- 손환일, 2017,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의미와 서체 -17차 발굴조사 성과 발표문을 중심으로-」, 『韓國史學史學報』 35.
- 윤선태, 2005, 「월성 해자 출토 신라 문서목간」, 『역사와 현실』 56.
- 윤선태, 2007, 「한국고대목간의 형태와 종류」, 『역사와 현실』 65.
- 尹善泰, 2012, 「咸安 城山山城 出土 新羅 荷札의 再檢討」, 『사림』 제41호.
- 윤선태, 2017, 「함안 성산산성 출토 신라목간의 연구 성과와 전망」, 『韓國의 古代木簡 II (학술총서 제69집)』,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 윤선태, 2018, 「월성 해자 목간의 연구 성과와 신 출토 목간의 판독」, 『목간과 문자』 20호.
- 이경섭, 2013a, 「新羅木簡의 출토현황과 분류체계 확립을 위한 試論」, 『신라문화』 42, 동국대학교 신라문

화연구소.

- 이경섭, 2013b, 「新羅 木簡文化의 전개와 특성」, 『民族文化論叢』 第54輯.
- 李丞宰, 2013a, 「新羅木簡과 百濟木簡의 표기법」, 『震檀學報』 117.
- 李丞宰, 2013b, 「함안 성산산성 221호 목간의 해독」, 『韓國文化』 6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이부오, 2017, 「6세기 초중엽 新羅의 非干外位 운영과 及伐尺」, 『한국고대사탐구』 26.
- 李成珪, 2009, 「前漢 更卒의 徵集과 服役 方式 -松柏木牘 47호의 분석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第109輯.
- 이성시, 2011, 「한국목간연구의 현재」, 『죽간·목간에 담긴 고대 동아시아』,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이수훈, 2017, 「함안 성산산성 출토 4면 목간의 代 -17차 발굴조사 출토 23번 목간을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105, 부산경남사학회.
- 이용현, 2015,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 221호의 국어학적 의의」, 『口訣研究』 第34輯.
- 이재환, 2018, 「함안 성산산성 출토 신라 荷札의 성격에 대한 새로운 접근」, 『韓國史研究』 182.
- 전경효, 2018, 「신 출토 경주 월성 해자 묵서 목간 소개」, 『목간과 문자』 20호.
- 전덕재, 2012, 「한국의 고대목간과 연구동향」, 『목간과 문자』 9호.
- 전덕재, 2017, 「중고기 신라의 代(代)와 代법(代法)에 관한 고찰 - 함안 성산산성 17차 발굴조사 출토 사면 문서목간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105.
- 주보돈, 2000, 「咸安 城山山城 出土 木簡의 基礎的 檢討」, 『한국고대사연구』 19.
- 최장미, 2017, 「함안 성산산성 제17차 발굴조사 출토 목간 자료 검토」, 『목간과 문자』 18호.
- 백두현, 2018, 「월성 해자 목간의 이두 자료」, 『목간과 문자』 20호.
- 谢桂华·李均明·朱国昭, 1987, 『秦汉魏晋出土文献 居延汉简释文合校 上册』, 文物出版社
- 寺崎保廣, 2004, 「帳簿」, 『文字と古代日本 1 支配と文字』, 吉川弘文館.

〈Abstract〉

Wooden Documents Excavated from the Seongsansanseong Fortress in Haman
and Documental Administration for National Services of Silla Dynasty

Lee, Jae-hwan

This article attempts to interpret three wooden documents(Gaya2645, Gaya5598, Gaya1602) excavated from the Seongsansanseong Fortress in Haman. Some ideas to consider were also found in the process. I would like to see Gaya2645 as a document that reported to a higher administrative agency. It seems that the labourers for national service who were led by □□智 一伐 have finished 60 day's work and had to take turns with the new labourers that □□走石 led, but 烏馮城 didn't let them go back home, so 村主 of □馮城 □看村 who has jurisdiction over their hometown, had to ask for their return. The role of 村主 and field manager dispatched on behalf of him is also seen in Gaya5598. In Gaya5598, field manager 伊毛羅 及伐尺 has examined the situation of the site and the workers, and announced that the shift period which was originally set at 60 days could be reduced to 30 days. Based on this, 村主 of 眞乃滅村 reported to 即尔智 大舍 and 下智 of □城 that it's okay to prepare only 30 day's food. Gaya1602 also shows that workers for national service were managed by their 村 in the field. This wooden document seems to be part of the books that recorded the present situation and increase/decrease of men(丁) by 村. It is also interesting that Gaya1602 was conscious of something else and left the top part and started writing down from the bottom part. It shows the possibility that several polyhedral wooden documents were used combined together, rather than being used solely. This gives a glimpse of the new aspect of the wooden documents culture in Korean peninsula.

▶ Key words: the Seongsansanseong Fortress in Haman, wooden tablets used as documents(文書木簡), Gaya2645, Gaya5598, Gaya1602, national services(力役), polyhedral wooden documents(多面木簡)